

“판소리·가야금 모두 능통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싶어”

“가야금병창에 입문했을 당시, 평범한 직장인이던 아버지가 ‘세상에 하나뿐인 가야금’을 손수 만들어 주셨어요. 가야금에는 ‘父心’이라는 글씨가 음각돼 있었죠. 그 뒤로 현을 뜯을 때마다, 아버지가 제 손가락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대중가요가 범람하는 현대에도 꽃꽂이 국악 외길을 걷는 이들이 있다. 그중 광주예고 국악과(3학년)에 재학 중인 최혜원 양은 아직 젊은 나이에 판소리의 음률과 대목을 암기하는 ‘완창 발표회’를 수차례 성료하는 등 국악에 ‘진심’이다.

그는 다섯 살 북구 경기남도민요 국악원에서 경기남도 민요를 사사받은 뒤,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문명자에게 판소리·가야금 병창을 전수받았다. 지난해에는 장성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가야금병창 대상을 수상했으며 오는 10일(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가야금 병창 발표회 ‘홍보가’도 앞두고 있다.

최혜원 양은 “가야금 줄은 명주실로 만들어 날씨, 조영 강도 등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기에 미리 조율해도 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지곤 한다”는 말로 현악연주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여기에 ‘창’과

광주예고 국악과 최혜원 양

가야금 병창 ‘홍보가’ 발표회

1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미산제 판소리 ‘수궁가’ 등 완창

“팔도 아리랑 병창 해보고 싶어”



‘발림’까지 곁들여야 하니, 가야금 병창자가 여간 신경 쓸 것이 많은 것. 또 시김새(꺾는음)에 유념해 감칠맛을 더해야 하고, 타루치기나 된목소리 등 기교적 측면에서도 부족해선 안된다.

그는 “국악의 꽃’이라 불리는 가야금 병창은 어려움이 많은 만큼 커다란 ‘완성의 쾌감’이 깃들어 있다”며 “국악계 대모이자 프리마돈나로 칭송받는 안숙선 명장처럼, 언젠가 판소리와 가야금 양쪽 모두 능통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혜원 양은 ‘한중 수교 기념공연’을 비롯해 ‘추억의 충장축제’에 얽힌 기억도 떠올렸다. 당시 ‘꼬마 국악인’이었던 그를 광주의 어른들이 귀엽게 봐주었고, 이 같은 추억이 모여 국악을 계속할 원동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후 미산제 판소리 ‘홍보가’나 ‘수궁가’ 등을 완창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총 6회의 개인 발표회를 열면서 나이에 비해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그가 줄곧 연습해 온 ‘경기민요’는 지역민요 특성상 지방에서 제대로 배우기가 어려웠고, 정식 레슨을 위해서는 서울까지 오가야만 했다. 그러던 와중 남도소리의 고장인 전라도 광주에서 ‘남도민요’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춘희 명장의 조언을 받아 남도민요에 전착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기회 삼아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 성음에 집중하고 있다.

한 번 경기민요로 물꼬를 튼 소리의 길을 바꾸기 쉽지 않았을 터, 과감한 결정을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꾸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20대가 되면 가야금병창 ‘적벽가’ 편 발표회, 가야금 민요 병창이나 팔도지역 아리랑 병창 공연 등을 선보이고 싶어요. 광주시 제18호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이수자로 문화재청에 등록되는 것도 하나의 목표죠. 꿈을 위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임전 허문 작 ‘강무’

운림산방 5대 7인의 200년 화업 한자리에

27일~4월 8일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진도 운림산방은 한국미술사에서 남종산수화 화맥이 깃든 의미있는 공간이다. 1대 소치 허련(1808~1893) 선생이 그림을 그렸던 화실 이름, 즉 당호이면서 허씨 일가의 화맥을 상징한다. 소치 허련부터 2대 미산 허형, 3대 남농 허건, 임인 허립, 4대 임전 허문 그리고 5대 허진과 허재 등 200여 년 화업의 역사가 담겨 있다. 조선 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사에 큰 획을 이루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이롭다.

지만 자신만의 조형적인 해석을 가미했던 허문의 작품이 주체다. 미술평론가 신항섭은 “1980년대부터 새로운 수묵화 기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전대미문의 독자적인 조형기법을 완성했다”며 “이른바 ‘운무산수’라는 선영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초현실적인 산수풍경이다”고 평했다.

운림산방 5대 7인의 200여 년 화업 한자리에 서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화제다.

2층 전시장은 5대 작품이 세대별 5-8점씩 모두 40 여점으로 구성돼 있다. 1대 소치 허련을 비롯해 남종 문인화의 품격을 세운 2대 미산 허형, 서정적인 실경으로 산남화를 제창한 3대 남농 허건, 미적 감각을 타고났음에도 요절한 천재화가 3대 임인 허립, 독창적 선염법의 운무산수 4대 임전 허문, 역사인식과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을 형상화한 5대 허진, 실경의 틀을 깬 5대 허재 등 독창적인 작품 경향을 보여준 이들의 작품과 만나게 된다.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관장 구본호,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오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리는 ‘林田 허문 초대전과 운림산방 5대전’이 그것. 이번 전시는 한 화가를 시작으로 5대순까지 200여 년 화업을 펼쳐온 한 가계의 역사와 열정, 예술적 DNA 등을 다각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무엇보다 남종산수화 변화과정은 물론 한국 근대미술사의 학술적 가치를 두루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본호 관장은 “이번 전시는 남종산수화의 변화 과정을 포함해 한국 근대미술사 흐름을 두루 조망할 수 있는 계기”라며 “유화와 채색 한국화 중심으로 변화하는 현재 미술문화와는 다른 우리 수묵화의 독자적인 아름다움, 깊은 사유 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층에서는 전통 수묵산수 기법을 초월하는 선영기법의 ‘운무산수화’를 창안한 4대 ‘임전 허문 초대전’을 볼 수 있다. 운림산방 전통을 토대로 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문화Zip합소’ 열린다

동구문화관광재단, 버스킹 월드컵 등 25개 사업 추진

‘버스킹 월드컵’ 위상 제고, ‘세대별 취향에 맞춘 테마 관광상품 개발’, ‘생활 속 친근한 문화예술 확산’.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 문창현·재단)이 글로벌 축제도시 구축, 도심관광 거점 조성 등 문화·관광·축제에 역점을 두는 25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재단은 생활 속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동네 카페, 서점 등을 연계하는 ‘문화Zip합소’ 프로젝트를 펼친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동구의 9가지 보물과 미래유산을 공부하는 맞춤형 교육키트도 개발한다.

도보문화권을 표방하는 ‘슬슬라이프’를 위한 한 낮(한밤)의 거리 음악회’를 비롯해 ‘제2회 오감만족 인문힐링 북페어’, 문화소의계승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예술매달’ 등도 역점 사업들이다. 이 밖에도 광주 최고(最古)의 단란극장 ‘광주극장’을 살리기 위해 관객 참여형 콘텐츠도 추진한다.

올해 3회째인 ‘광주 버스킹 월드컵’도 재단이 전담해 개최한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 뮤지션이 경연을 펼치는 축제다. 지난해에는 아발론(스페인), 댄 무드(이탈리아), 칸트레스트(독일), 우물안개구리(대한민국), 리비아 엔 프레드(브라질) 등 세계 각국 버스커들이 공연을 펼쳤다. 올해는 기존 축제를 보완해 공연과 음악, 스트릿 컬처 축제를 혼합한 글로벌 행사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광주버스킹월드컵’ 진행 장면.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이 밖에도 동구 문화관광 캐릭터 ‘충장프렌즈 브랜드’의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며, 캐릭터 체험 등이 가능한 ‘충장프렌즈 하우스’를 충장로에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MZ세대 관광객들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겠다는 취지다.

문창현 대표는 “올해는 광주 동구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이다”며 “개원 2주년을 맞은 재단이 ‘동구 문예르네상스’를 여는 데 의미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 ‘아시아박물관 산책 IV’

20일 강인욱 경희대 교수 강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아시아문화박물관(문화교육실4)에서 지난 6일 ‘아시아박물관 산책 IV’(중앙아시아) 첫 강좌가 열렸다.

이번 강좌는 (재)호남문화재단연구원, ACC, (재)아시아문화재단, 광주일보사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진행되며 불교를 비롯해 회화, 공예,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른다.

조성욱 전북대 교수가 첫 강사로 나서 ‘중앙아시아 지리’를 주제로 아시아 대륙에서 독특한 지역적 특징을 지닌 중앙아시아 지리를 강의했다.

3월 20일에는 강인욱 경희대 교수가 ‘실�크로드 기원’을 모티브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동서문명 교류의 중요한 축이었던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5월에는 박하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보는 실�크로드’, 이주형 서울대 교수의 ‘실�크로드의 불교’, 민병훈 전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부장의 ‘실�크로드의 회화’, 이송란 덕성여대 교수의 ‘실�크로드의 공예’, 전인평 중앙대 명예 교수의 ‘실�크로드의 음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시간(6월 12일)은 주아제르바이잔 대사를 역임했던 전문가의 강의로 채워진다. 최석인 전 주아제르바이잔 대사가 ‘중앙아시아와 한국’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양 차 문화의 근원을 따라서’

우리차 깊이알기 연구회, 인문학 강좌... 16일부터 광제시민선원

(사)초의자문화연구원 부설 우리차 깊이알기 연구회(우차연)이 차 인문학 강좌를 개설한다.

우차연은 7일 “동양 차 문화의 근원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올해 차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광제시민선원(광주시 서구 경열로 108번길)에서 오는 16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광제선원. <우리차 깊이알기 연구회 제공>

이번 강좌는 차 생활의 깊이를 더해줄 차 문화의 서사와 사상을 유물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김성태 차 문화 연구가가 맡았다. 김 연구가는 부산 차 어울림 문화전에서 차 도구 유물전, 보성 티엑스포에서 차 문화 전년전 등 여러 전시회를 열어 ‘차 도구 유물 수집가’로 평가받는다. 강좌는 김 연구가가 유물을 수집하면서 갖추게 된 동양의 차 문화사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으

로 진행된다. 준비물은 개인 찻잔과 찻도구이며 참가비는 50만원이다. 주제별 강좌 참여도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제선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